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1
River & Culture



조경화 | 청년박물관 학예연구사
(hopeful@korea.kr)

우포늪의 역사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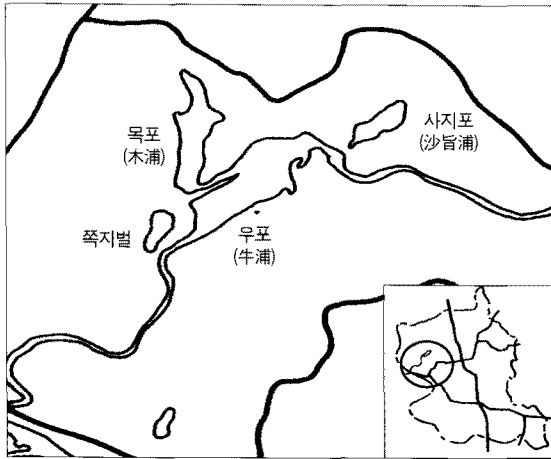
우포늪은 낮은 구릉에 둘러싸인 호수이면서 초원이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면 땅도 아니고 저수지도 아닌 땅의 역사와 물의 역사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늪이다. 물과 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우포늪의 역사는 문헌상으로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물과 땅과 하늘이 기억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1. 우포늪의 지명 유래

우포늪은 소벌과 나무개벌(木浦), 모래늪(砂旨浦), 그리고 가장 작은 쪽지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네 개의 늪을 통틀어 우포늪이라고 부른다. 크기순으로 보면 소벌 > 나무개벌 > 모래늪 > 쪽지벌로 나누어진다.



<그림 1> 위성사진으로 본 우포늪



(그림 2) 삽도로 본 우포늪 배치도

우포늪에 관한 옛 문헌을 살펴볼 때 옛 문헌에는 ‘우포늪’이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는다. 가장 오래된 지리지인 세종 때의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소하천이나 소택지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성종조(1477)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창녕현편에 물슬천(勿瑟川), 이지포(梨旨浦), 누구택(樓仇澤), 용장택(龍壯澤)의 기록이 나오고, 순조조(1832)에 편찬된 경상도읍지도에 같이 기록되어 있으며, 철종조에 편찬된 대동여지도(김정호, 1861)에는 물슬천과 이지포는 지도에 나타나 있으나 누구택(樓仇澤) 대신에 누포(漏浦)라는 지명이 나와 있다.

이들 지리지에 나오는 지명은 동국여지도, 경상도읍지의 창녕현지도 및 현지형도를 근거로 분석해 보면 물슬천(勿瑟川)은 지금의 토평천이며, 용장택(龍壯澤)은 현재는 개간되고 없는 대합면에 있던 용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지(梨旨)라는 지명은 토평천 하류부 성산리에 이지 혹은 배말리라는 지명이 나타나 있으나 현재 이 위치에는 소택지가 없다.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누구택(樓仇澤)과 누포(漏浦)는 그 위치가 현 우포늪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일제에 의해 지명들이 개정되고 우포, 목포, 사지포로 명기되어진다.¹⁾

우포늪뿐만 아니라 나무개벌과 모래늪, 그리고 쪽지벌도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있다. 먼저 나무개벌은 한자로 표기하면 ‘목포(木浦)’가 되는데, 여름철이 되면 작은 하천을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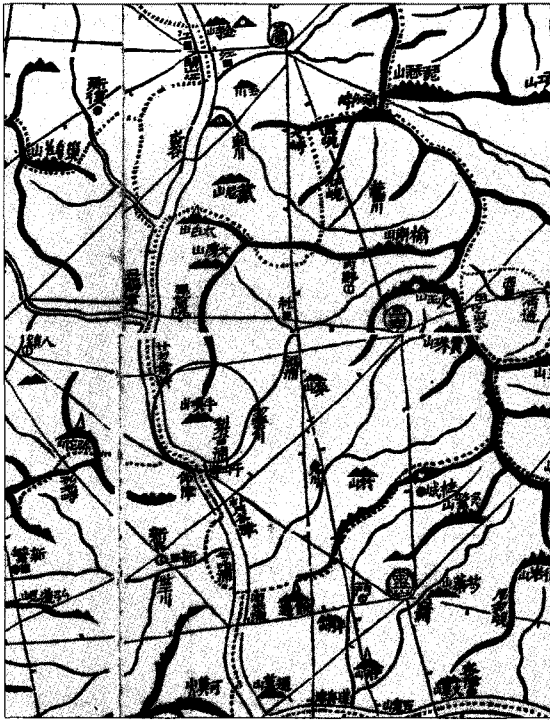
나무 뿔감이 많이 떠내려 와서 나무 뿔감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곳이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 한다. 그리고 모래늪을 한자로 표기하면 ‘사지포(砂旨浦)’가 되는데, 역시 나무개벌과 마찬가지로 이름의 유래를 쉽게 알 수 있다. 네 개의 늪 모두가 모래나 뿔이 있었지만 모래가 가장 많이 있어서 모래늪이라 불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쪽지벌은 한자로 표기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네 개의 늪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기 때문에 쪽지벌이라 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²⁾



(그림 3) 해동지도로 본 창녕(18세기)

우포늪 주변의 문화재를 돌아보기 위해 대대득을 지나면 토평천을 만나게 되고 사지포둑을 지나면 소목마을에 도착한다. 소목마을의 솔숲을 여유롭게 지나고 나면 목포 제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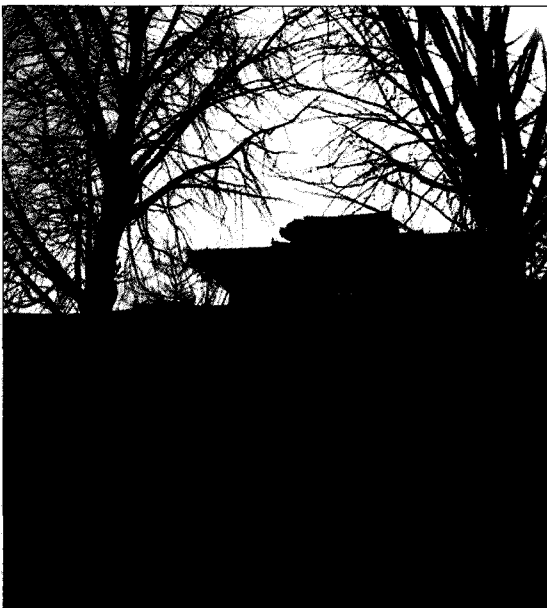
1) 김형민, 2006, '창녕 우포늪의 식생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보고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
2) 高寧郡誌編纂委員會, 高寧郡誌, p114



〈그림 4〉 대동여지도로 본 창녕(19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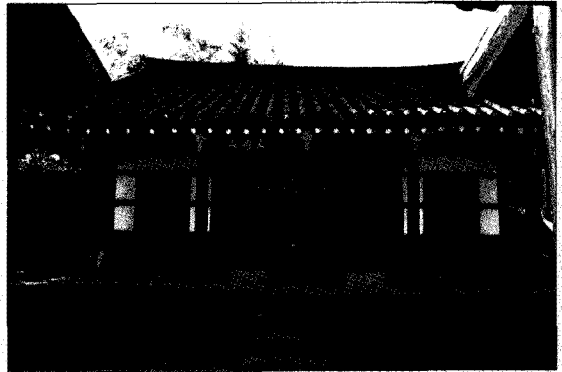
나오고 제방 맞은편으로 목포재가 나타난다. 이곳의 목포재와 경의사에서서는 충주 석씨의 시조와 창녕에서의 석씨일가 형성에 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2. 목포재(木浦齋)



〈그림 5〉 입구에서 본 목포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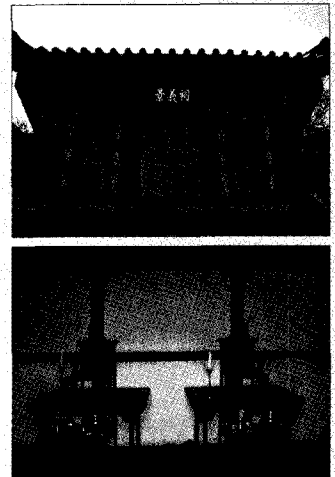
충주 석씨 시조 석린(石麟)의 13세손인 석인(石麟)이 조선 성종 25년(1494)에 의령에서 창녕군 남지읍 고곡리로 들어와 2대를 살다가 명종 5년(1550)에 석인의 자부(며느리)인 은진 송씨가 아들 근주(根柱)를 데리고 이방면 옥천리로 이주하였다. 아들 근주는 안동 김씨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아들 삼 형제를 낳아 창녕의 석씨일가를 형성하였고 이후 대합면 대탄마을과 이방면 우판마을로 분산하여 살았다. 목포재는 1921년에 건립한 충주 석씨의 대종재실이다.



〈그림 6〉 목포재

3. 경의사(景義祠)

충주 석씨 시조 석린(石麟)의 7세손인 천을(天乙)과 8세손인 여명(汝明)의 위패를 모시고 봄과 가을에 향사를 올리는 사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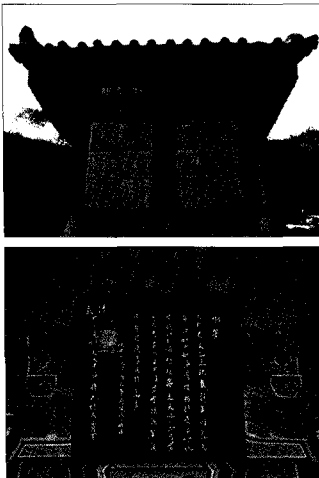


〈그림 7〉 경의사

4. 어필각(御筆閣)

충주 석씨 시조 석린의 6세손 석양선(石良善)은 태조 이성계의 이모부이다. 태조 이성계 탄생 후 다섯달만에 태조의 어머니 의혜왕후가 죽으니 어린 이성계는 이모의 품에서 자

라게 되었다. 훗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왕위에 오르
 게 되자 이모부인 석양선은 흥양부원군으로, 이모 최씨는 경
 창옹주로 봉했으며, 석양선의 아들인 석천을은 중랑장으로
 임명하고 태조즉위 이듬해에 천율이 입시(대궐에 들어가 임
 금을 알현하고 모시는
 것)하자 태조가 같은
 젓을 먹고 자란 형제의
 우의를 생각하여 시를
 지어 하사하였는데 이
 것이 어필이다. 1945년
 에 우만 문중에서 어
 필각을 건립하여 어필
 과 시조 석린의 8세인
 석여명의 왕지(임금이
 내린 교지)를 보관하
 고 있다.



〈그림 8〉 어필각

5. 동제나무(洞祭木)

우포늪 주변의 마을들을 돌다보면 황토가 뿌러지거나 금
 줄이 쳐진 나무들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형성된 마을 공동의 제사를 지낸 흔적
 들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동네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
 를 지낸 것일까? 정성들여 꼬아 만든 금줄이 동네어귀의 큰
 나무에 감겨져 있다.



〈그림 9〉 동제나무

어느 마을의 동제 대상이 된 이 나무는 200년 동안 자신의
 마을을 지키며 서 있었던 팽나무로 확인된다. 아직도 젊은
 나이로 생각하는지 아주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어 동네 사람
 들의 버팀목 역할도 충분히 해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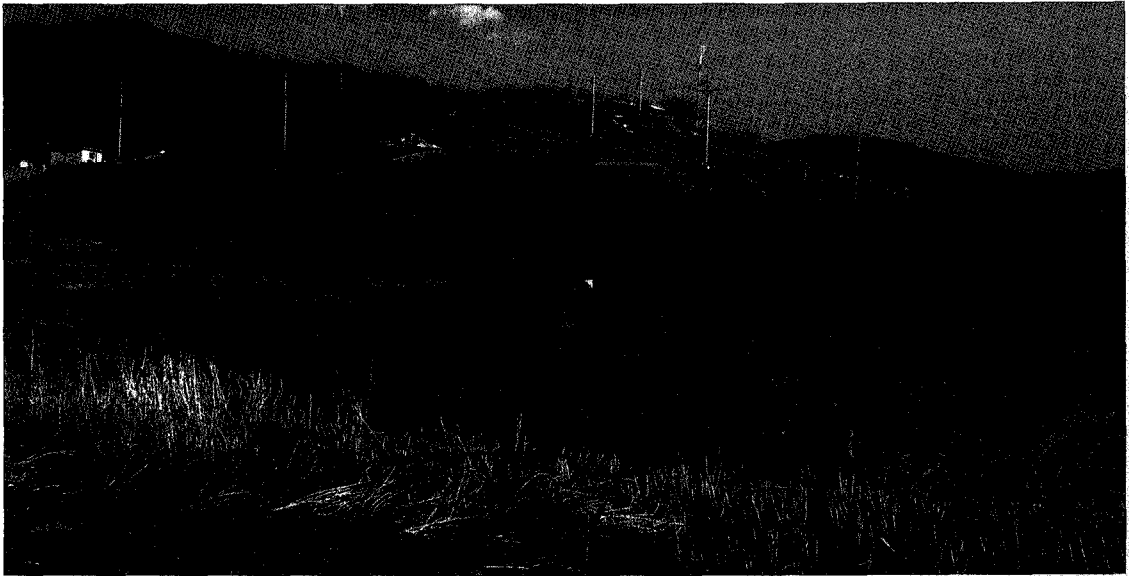
〈그림 10〉 동제나무의 금줄

6. 기타 유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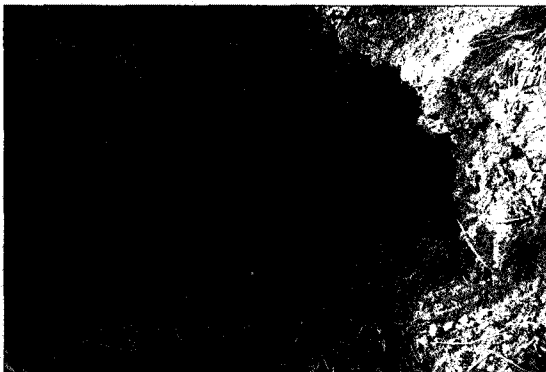
창녕지역은 신석기시대에서부터 중·근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고고·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창녕 우포늪 일원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생업환경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계
 쪽으로 집중되어 문화유적의 측면에서는 소홀하게 다루어
 져 왔다. 현재 우포늪 일원에서는 중생대 백악기의 공통 발자
 국을 비롯하여 삼국시대 고분군인 초곡리 소장미마을 고분
 군, 조선시대 민묘군인 주매리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넓은
 지역에 비해 유적의 분포도가 매우 낮지만 중생대 백악기에
 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6.1 주매리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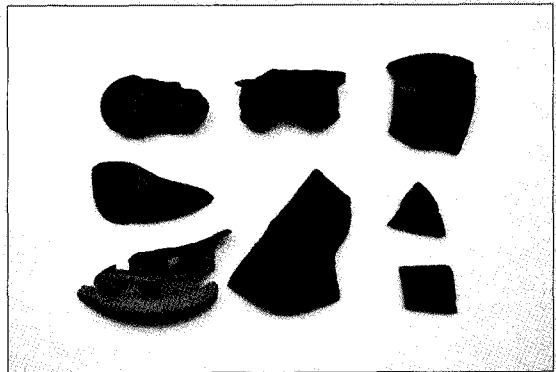
우포늪 주변에서는 확인된 고분유적 중 대표적인 것으로
 주매리 고분군이 있다. 주매리 산 616번지에 소재하는 조선
 시대 고분군으로 1979년에 청동순가락과 찻가락, 청동가락지
 가 각 1점씩 발견되어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다고 전
 해지지만 안타깝게도 봉분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그림 11〉 주매리 마산터 고분군 전경



〈그림 12〉 고분군 중 석곽노출 모습



〈그림 13〉 고분군 수습유물

6.2 주매리 마산터 고분군

주매리 마산터 고분군은 최근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주매리 고분군의 동쪽 능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석곽묘 형식을 주로 사용한 분묘들이다. 봉분의 규모와 형태로 보아 창녕 지역의 일반적인 석곽묘로 추정되고, 주변에서 채집되는 토기편들로 볼 때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7.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우포늪 주변의 문화유산을 찾아보았다. 사람이 살기 시작하게 되면 주변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자연과 닮

은 삶을 만들어내게 된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하고 유구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까지다. 이제 곧 우포늪의 아름다운 환경과 고즈넉한 문화유산이 만들어낼 진경을 확인할 수 있는 봄이 온다.

우리는 이곳에서 지나간 시간을 본다. 그 속에서 자연이라는 부분은 참 위대하다. 그리고 그 위대한 자연 속에서 형성된 문화유산은 참 아름답다. 지나간 시간의 역사를 지금도 넉넉하고 여유롭게 확인시켜주는 우포늪의 모퉁이에서 시간이라는 힘을 믿어본다. ●